

2008. 11. 3 제202호

# 세계도시동향

# 세계도시

2008. 11. 3 제202호

## 목 차

### [벤치마킹 사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대도시권의 '광역개발계획 2030'

### 문화·디자인

1. 예술과 만난 대중교통 시설물 (시애틀)
2. 도청 벽면이 예술작품 전시장 (도쿄)
3. 공연예술센터가 지역 명소로 인기 (뉴저지주 뉴왁市)
4. 문화시설물에 대한 관리방식 개선 (베를린)
5. 브라질에서 즐기는 독일 맥주축제 (브라질 산타카타리나州)

### 산업·경제

6. 중소기업 입찰 지원 데이터베이스 성공적으로 운영 (런던)
7.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세계 우수 기업가에게 자문 (런던)
8. 경제활동 인구로서의 노인의 역할 (베를린)
9. 고유가 대책으로 중소기업 및 조합에 특별융자 실시 (도쿄)

## 목 차

### 건강·복지

10. 노령인구와 기후변화의 상관관계에 주목 (영국)
11. 학생이 급식메뉴 결정 (브라질 플로리아노폴리스市)
12. 자살 고민, 다중 채무...모두 상담받으세요 (도쿄)
13. 2010년 노령인구 약 250만 명 예상 (북경)
14. '9073 노인복지 정책' 시행 (상하이)
15. 노인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상하이)

### 도시환경

16. 공원과 오픈 스페이스를 맘껏 즐기자 (런던)

### 도시교통

17. 소배기량 경차 주차 우대 혜택 (상하이)

### 도시계획·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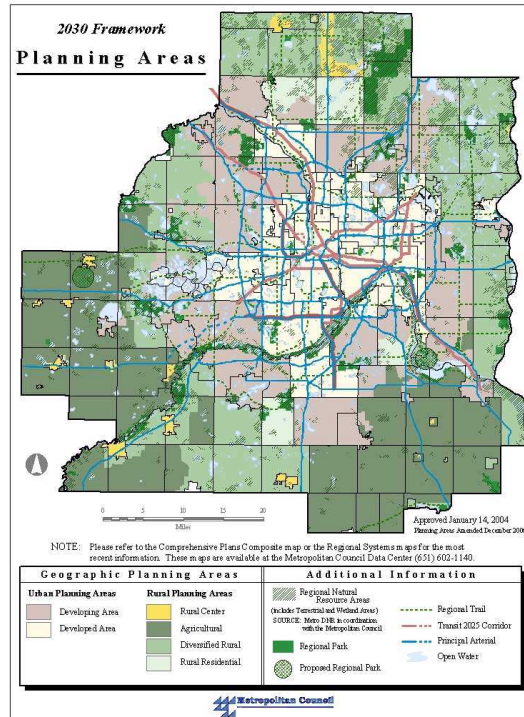
18. 6조 5000억 원 규모의 주택건설 계획 발표 (로스앤젤레스)
19. '벌거벗은 거리'로 가로체계 디자인 (런던)
20. 만질 수 있는 도시모형 제작 (함부르크)

## [벤치마킹 사례]

###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대도시권의 ‘광역개발계획 2030’

#### <주요 내용>

-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대도시권에는, 1967년부터 미네소타주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광역위원회(Metropolitan Council)가 명실상부한 대도시권 거버넌스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음. 대도시권에는 공공권한을 가진 정부조직이 없는 미국의 특성상,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임.
  - 7개 카운티와 182개의 기초자치단체가 환경, 교통, 경제개발, 상하수도 및 주택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문제에 대해 정책을 결정할 때, 광역위원회가 큰 영향을 미침.
  - 미네소타주는, 매년 미니애폴리스 대도시권의 7개 카운티와 182개의 기초자치단체들이 2005년 발효한 ‘광역토지개발계획’(Metropolitan Land Planning Act)을 통해 2030년까지의 종합적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광역위원회는 각 계획을 조정하는 역할을 함.
    - 기존 체제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목표로 수립되며, 대도시권에서 종합적으로 조정되기는 매우 힘들었음.
    - 지방자치단체들이 계획 수립 시 주변지역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개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의 소지가 매우 많았음.
  - 미니애폴리스 대도시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이 장기광역개발계획(2030 Regional Development Framework)의 내용과 규정에 어긋나는 개별 계획은 법으로 수립할 수 없게 함.
    -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미리 억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적·통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됨.



미니아폴리스 대도시권의 '광역발전계획 2030'

- 광역개발계획은 대도시권의 경제·산업·사회적 인프라의 통합운영을 지향함.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음.
  - 효율적인 성장: 기초자치단체들의 협력을 통해 신속적이고 효율적인 성장 시스템을 구축
  - 복합 운송체계 구축: 자가용 운용을 억제하고 여러 가지 운송수단 제공을 통해 환경오염 및 에너지 소비를 억제
  - 주택 선택의 확대: 주택지구의 위치와 다양성 확대
  - 자원보호: 광역지구의 다양한 자연자원을 여러 단체와 협력해 보호

### <해설 및 평가>

#### ○ 지방자치단체의 지나친 이기적 행위 근절

- 일반적으로 대도시권 내 지방자치단체들은, 모든 정책을 통해 산출되는 이익을 나누지 않으면서 정책 관련 비용은 다른 자치단체로 미루려는 경향이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대도시권은 종합적이고 일관적인 대도시권 정책 수립과 집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미니애폴리스 대도시권은 교통, 환경, 경제발전의 광역장기계획 수립 시 182개 지방정부 각각의 계획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조정할 수 있음.
  -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장기계획을 통한 일관된 정책 집행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 지방정부 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사회자본 형성

- 정부의 통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동시에, 새로운 의미의 협치 혹은 거버넌스가 새로운 시대의 공공영역 사회운영시스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물리적·인적 자본이 아닌 사회구성원 간 원활한 관계를 의미하는 사회자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 미니애폴리스 대도시권의 경우, 종합발전계획 수립부터 집행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주변 자치단체를 비롯해 비영리조직 및 사적 조직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할 것을 권유하고 강제함.
  - 사회자본 축적의 기본이 되는 조직 간 의사소통과 서로 도움이 되는 사회적 관계가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 실증적 연구에 의하면, 미니애폴리스 대도시권의 사회자본 수준이 매우 높음.

<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

○ 종합적 발전계획의 부재

- 현재 서울시의 경우, 정책분야별로 다양한 시책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조망하고 장기적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계획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음.
  - 이는 정치적 변동에 따라 변화하는 한국 지방자치 문화의 특성상 시정의 일관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고 있음.
- 행정구역 개편 등 정치·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동시에, 세계화 경향에 능동적으로 편승할 수 있는 서울시의 장기발전계획이 시급히 합의되고 장기적으로 운영돼야 함.

## ○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제고

- 현재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 간 협력보다는 갈등 및 경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서울시가 가진 재정적·행정적 권한을 고려해볼 때, 서울시는 자치구 간 경쟁이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판단됨.
- 하지만 실제 적극적으로 자치구 간 협력을 유도하는 행정보다는 법과 규정에 근거한 기계적 행정이 두드러진 상황임.

### <벤치마킹 시행방안>

- 서울시 차원에서 종합적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함.
- 미국의 경우보다 서울시는 장기적·종합적 발전계획을 세우기에 정치적·제도적으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음.
- 정치적·이념적 선호를 넘어선 25~30년의 통합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정책을 이 기준에 맞춰 조정함. 또한 자치구의 내부계획 수립 기준과 방향성을 제공해야 함.
- 현재 자주 발생하는 자치구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 권한을 이용, 자치구 간 협력시스템을 확충하고 지속적 대화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의 협의회 제도로는 공식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을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으며, 사회자본 형성의 기초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자치구 간 대화와 협력을 전제로 하는 광역정책 및 사업을 개발·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 <벤치마킹 기대효과>

-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으로 통합적인 서울시정의 방향성과 안정성이 기대됨.
- 각 자치구에 안정적인 미래 예측과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치구의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서울시 및 다른 자치구와의 갈등을 피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배양함으로써, 서울시정의 원활유가 될 수 있는 사회자본 생산과 정착을 기대할 수 있음.

/이주현 창의시정연구본부 부연구위원(jules529@sdi.re.kr)

## 문화 · 디자인

### 1. 예술과 만난 대중교통 시설물 (시애틀)

- 시애틀市는 예술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 대중교통 운영기관인 ‘사운드트랜짓’(Sound Transit)에서 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함.
  - 1970년대부터 시애틀市는 공공장소에 있는 예술작품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해 왔음.
  - 시민은 일상생활 속에서 마주치는 거리, 가로등, 버스정류장, 공원 벤치, 도서관, 경찰서 등에서 다양한 예술작품을 만날 수 있게 됨.
  - 市는 시설물이 완공된 후에 예술작품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 시작단계부터 예술작가를 참여시킴으로써 주변 건축물, 거리, 광장 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경전철역의 가로등(왼쪽), 집게모양의 철로 기둥(가운데), 비 가리개(오른쪽)

([seattlepi.nwsourc.com/visualart/381131\\_artsoundtransit29.html](http://seattlepi.nwsourc.com/visualart/381131_artsoundtransit29.html))



## >>> 전문가 검토의견

- 대중교통 관련 시설물에 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한 시애틀市の 프로젝트는 도시의 경관과 공공장소의 이미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판단됨.
- 대중교통 시설물에 민간기업의 광고보다는 예술작품을 설치해, 시민의 일상 생활에서 예술을 접하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봄,
- 하지만 이러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대중교통의 고유기능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임.

- 이 프로젝트는 서울시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서울시의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환승센터 등 대중교통 관련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이신해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newsun@sdi.re.kr)

## 2. 도청 벽면이 예술작품 전시장 (도쿄)

○ 도쿄都는 ‘도쿄 윈더 월 공모 2008’에서 수상한 작품 12개를 2008년 10월부터 차례로 한 달씩 1년간 전시함.

- 도청의 벽면을 신진 미술작가의 작품 발표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2000년 도청의 제1 본청사 3층과 도의회 의사당 사이의 연결 공간에 ‘도쿄 윈더 월’을 설치함.
- 공모에서 채택된 12명 작가의 작품을 순서대로 매월 도청 벽면에 전시함.
- 각 개인전 첫날에는 오프닝 토크를, 매월 중순 수요일에는 갤러리 토크를 실시해 작가가 직접 작품을 해설해 주고 방문객과 질의응답함.

([www.metro.tokyo.jp/INET/EVENT/2008/09/21i9p100.htm](http://www.metro.tokyo.jp/INET/EVENT/2008/09/21i9p100.htm))



2008년 10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전시될 작품

### >>> 전문가 검토의견

- 도쿄 원더 월은 지난 ‘서울 컬처노믹스’ 계획 당시 해외 사례로 소개한 바 있음.
- 국내 자원이 취약한 도쿄는 국제적인 자원 교류를 통해 창의도시로 나아가고자 하며, 그 계획 중 하나가 도쿄 원더 월임.
- 서울시 역시 다른 어떤 도시들에 비해 가능성이 크므로, 신진 작가 및 세계적인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발표할 공공장소와 행사 개발이 필요함.
- 그런 점에서 도쿄 원더 월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라도삼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kuber21@sdi.re.kr)

### 한줄 뉴스

- 북경시, 온도나 습도에 이상이 생길 경우 30초 안에 경보장치가 울리도록 모든 육류 운송차량에 온도 및 습도 조절 장치 부착
- 콜로라도주, 고속도로에 동물이 지나가면 차량 운전자에게 전자신호를 보내는 기술 실험

### 3. 공연예술센터가 지역 명소로 인기 (뉴저지주 뉴왁市)

○ 미국 뉴저지주 뉴왁市는 1997년 10월 세계적인 시설을 갖춘 뉴저지 공연예술 센터를 건립함. 총 2750석의 다목적 극장을 비롯해 500석 규모의 소극장, 레스토랑, 연회실, 연습실 등을 갖춘 다목적 공연예술센터로, 지난 10여 년간 시민의 사랑을 받아왔음.

- 당초 뉴왁市의 도시재생사업으로 건립된 이 공연예술센터는, 현재 새로운 문화지구의 중심이 되고 있음.

·개장 이후 총 1억 8700만 달러(약 2280억 원)에 달하는 기금 및 수입이 있었고, 그동안 350만 명 이상이 관람함. 연간 100회 이상의 문화예술 공연과 행사가 개최됨.

·뉴욕 타임스는 “세계적으로 인정할만한 콘서트홀”이라는 극찬을 하기도 함.

- 뉴왁市 문화국에서는 이 공연예술센터에 대한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음.

·자가용과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차장과 버스정류장을 정비함.

·레스토랑과 야외 휴게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서 역할하고 있음.

([www.ci.newark.nj.us/residents/places\\_activities/place\\_1.php](http://www.ci.newark.nj.us/residents/places_activities/place_1.php))

### 4. 문화시설물에 대한 관리방식 개선 (베를린)

○ 베를린市는 극장, 공연장, 미술관 등 251개의 문화용도의 건물과 165개의 문화용도 부지 관리방식을 바꿀 예정임.

- 베를린 시의회는 문화시설물 관리 개선과 효율화를 위해 한 건물관리 회사를 통해 문화시설에 대한 기술적·인프라적·경영적인 시설물 관리감독 (Facility Management)을 맡기기로 함.

·우선 6개의 문화시설에 대해 2년간의 실험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결과가 긍정적일 경우 모든 문화시설로 시설물 관리감독을 확대한다는 방침임.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8/09/23/109942/index.html](http://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8/09/23/109942/index.html))

## 5. 브라질에서 즐기는 독일 맥주축제 (브라질 산타카타리나州)

- 브라질 산타카타리나州의 맥주축제(Oktoberfest)가 관광상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음.
  - 산타카타리나州는 독일 이민자들이 독일 본토의 축제를 그대로 가지고 와 맥주축제를 여는 곳으로 유명함.
    - 독일의 전통음악을 들으며 마치 독일에 있는 착각에 빠져 축제를 즐길 수 있음.
  - 2008년에 25회를 맞았으며, 브라질에서 카니발 다음으로 규모가 큰 축제임.
    - 2007년에만 해도 69만 명이 축제에 참가해 3주 동안 생맥주 36만 5000리터를 소비함.

([www.clicrbs.com.br/especial/sc/oktoberfest/home](http://www.clicrbs.com.br/especial/sc/oktoberfest/home))

## 산업 · 경제

### 6. 중소기업 입찰 지원 데이터베이스 성공적으로 운영 (런던)

- 런던개발청은 2008년 9월말 런던시내 중소기업 중 약 84%가 ‘중소기업 입찰 지원 데이터베이스’(CompeteFor)에 등록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발표함.
  - CompeteFor는, 2012년 런던올림픽 준비과정에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개발자와 입찰 업체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시스템임.
  -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는 런던개발청은 CompeteFor를 통해 성사된 계약의 86%가 중소기업에게 돌아갔다고 밝힘.
    - 성공 요인으로 기업관계자의 참여를 높이는 데 앞장선 런던경제인협회(The London Business Network)의 역할을 꼽음.

- CompeteFor 회원으로 등록한 한 인도식당 주인은 공급 계약 시 받는 혜택 뿐 아니라 국제행사 관련 다양한 문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 새로운 사업 아이템 개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함.

([www.lda.gov.uk/server.php?show=ConWebDoc.2801](http://www.lda.gov.uk/server.php?show=ConWebDoc.2801))

([www.competefor.com/london2012business](http://www.competefor.com/london2012business))

## 7.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세계 우수 기업가에게 자문 (런던)

- 런던시장은 런던을 살만하고 성공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 ‘국제 비즈니스 자문 위원회’(International Business Advisory Council)와 함께 세계 우수 기업가와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함.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신용경색과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돼 의미를 더하고 있음.

- 이번 토론 행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논의됨.

- 런던시의 교통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향상
-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는 살기 좋은 런던 만들기
- 세계경제 침체 속에서 시민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노력
- 2012년 런던올림픽 개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는 노력
- 투자 유치에 방해되는 법률 개정과 국제 투자자들의 목소리 대변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9096](http://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9096))

### 한줄 뉴스

- 도쿄都, 히키코모리(외톨이) 대상으로 전화 및 메일 상담 외에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상담도 개시
- 일본, 용기 포장지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 투표로 ‘용기 포장 다이어트 대상’ 수여

## 8. 경제활동 인구로서의 노인의 역할 (베를린)

○ 베를린市 경제·기술·여성부는 2008년 9월 市 통합·노동·사회부, 베를린 상공회의소, 상업연구소, 상업협회, 기업협회, 베를린 여성 엔지니어 협회, 독일 노조연맹 베를린 지부, 베를린 국제 디자인센터의 전문가들을 초대해 ‘인구학적 변화와 경제적 도전’이라는 포럼을 개최함.

- 앞으로 도시의 경제활동에서 고령인구가 예전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러한 경향은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베를린市에서 55세 이상의 인구 중 근로인구는 2002년과 2006년을 비교할 때 남자는 55.8%에서 59.3%로, 여자는 41.4%에서 49.2%로 증가함.
  - 하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에서 50세 이상의 근로자는 고용하지 않고 있어 노인의 경제활동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고령화 사회에서 인구변화가 상업, 서비스, 시장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이러한 변화 속에서 베를린市의 경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등을 논의함.
  - 주요 내용은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구매행태와 상거래 풍경의 변화, 인구학적 변화에 대한 기업의 준비, 노동력 시장에서의 영향, 고령화 사회에서 전문인력 수요 확보를 위한 전략 등임.
-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현재의 소비행태나 서비스 및 상품 구매욕구는 계속 변화할 것이며, 이에 대한 미래 경제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논의됨.
  -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필요한 전문인력 분야에 노인의 능력을 집중 투입하고, 노인의 재교육과 창의적인 자기개발을 후원하는 기업에 적극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됨.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8/09/29/110457/index.html](http://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8/09/29/110457/index.html))

## 9. 고유가 대책으로 중소기업 및 조합에 특별융자 실시 (도쿄)

○ 도쿄都는, 원유 및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총이익이 저하되고 경영이 악화되는 중소기업 및 조합을 대상으로 '원유·원재료 고가 대책 특별융자'를 실시해 2008년 4월부터 6개월간 신청 접수를 받음.

- 융자 대상은 설비 또는 운용 자금으로, 융자금의 규모는 기업에는 1억 엔(약 13억 원) 이내, 조합에는 2억 엔(약 26억 원) 이내임.  
·융자기간은 7~10년이고, 이율은 연 1.9~2.6%로 최우대 금리를 제시함.

- 도쿄都는 이번 특별 융자 접수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해 2009년 3월까지 실시하기로 하고, 기존 건축 관련 중소기업 융자 사업을 통합함.

- 원유·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사업에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자가 융자 및 경영 전반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특별 상담창구도 설치함.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8/09/20i9u300.htm](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8/09/20i9u300.htm))

## 건강 · 복지

## 10. 노령인구와 기후변화의 상관관계에 주목 (영국)

○ 인구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여느 유럽국가와 같이 영국도 노령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기후변화에 대한 노년층의 대처방안, 기후변화가 노년층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최근 발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 노년층은 50세 이상임. 2031년에는 5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4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함.

- 지리적 위치, 정보 수집 용이성, 건강상태, 공공 서비스의 질, 사회복지 체계, 소득 수준 등에 따라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
- 정책, 주택, 교통, 접근성(장애에 따른 이동성 문제), 리더십 등 다섯 가지 분야별로 노년층을 고려한 기후변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함.

- 영국에서 인구 변화 등 다양한 사회상을 반영한 정책은 아직 나오지 않은 실정임.

- 노령 인구와 지구 온난화를 함께 고민하는 정책이 개발된다면 사회경험이 풍부한 노년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정책 방향을 더욱 다양화할 수 있음.
- 노약자를 위한 시설 개선에도 지구 온난화 대책을 연계해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c.europa.eu/environment/integration/research/newsalert/themes\\_en.html#cli](http://ec.europa.eu/environment/integration/research/newsalert/themes_en.html#cli))

### >>> 전문가 검토의견

- 영국의 사례는 인구고령화와 기후변화를 연계한 정책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함.
- 세계 여러 국가가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나 이제까지 독립적으로 다뤄져 왔던 두 개의 현상이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에 주목함.
- 아직 구체적인 정책이나 사업이 제시된 바는 없으나 정책개발 과정 전반에 걸쳐 새로운 시각이 도입될 것을 예고하고 있음.
- 지속가능한 도시로서의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에 있어, 인구고령화와 기후변화는 각각 핵심적인 요인으로서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 이 두 개의 현상을 연계한 정책 및 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노년층이 가진 신체적, 사회적 취약성과 함께 이들이 가진 자원과 강점 등이 지구 온난화에 대한 사회적 대처방안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함. 즉, 기후변화에 따른 정책대상으로서 노인을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돼야 할 것임.

/김선자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sunjakm@sdi.re.kr)



## 11. 학생이 급식메뉴 결정 (브라질 플로리아노폴리스市)

- 브라질 플로리아노폴리스市에서는 급식메뉴로 굴을 포함할지에 대해 시립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식행사를 실시하고, 투표를 통해 메뉴를 결정하기로 함.
  - 市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비만 문제로 고심하다 영양가가 높으면서 칼로리가 낮은 식품인 굴을 시립학교 메뉴에 포함하자는 안을 냈.
  - 새로운 메뉴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시식해 본 학생 중 85%가 찬성해야 함. 이번 굴밥에 대해서는 86%가 찬성함.
  - 굴 메뉴가 확정되면 학생들에겐 영양이 풍부하면서 칼로리 낮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고, 매주 700kg 이상의 굴을 구입하게 돼 굴 양식 산업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함.

([www1.folha.uol.com.br/folha/educacao/ult305u448690.shtml](http://www1.folha.uol.com.br/folha/educacao/ult305u448690.shtml))

## 12. 자살 고민, 다중 채무...모두 상담받으세요 (도쿄)

- 도쿄都는 2008년 9월 자살을 고민하는 사람이나 유족, 채무 관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대상으로 특별 상담을 실시함.
  - 자살을 고민하는 사람 대상 특별 상담(2008년 9월 6일 오전 6시부터 48시간)에는 162건의 전화 상담이, 자살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족 대상 상담(자살로 인해 가족을 잃은 적이 있는 경험자가 상담해 줌)은 16건이었음.
    - 상담자의 남녀 비율은 반반, 연령대는 30대가 가장 많았음.
    - 자살 계획이 있는 경우가 12.7%, 자살 미수 경험자는 5명 중 1명(18.6%)로 조사됨.

- 이번 캠페인과 함께 실시된 ‘다중 채무 110’에서는 도쿄 변호사회, 도쿄 사법서사회 등의 협력을 얻어 2일간 508건의 채무 관련 특별 상담을 실시함.
  - 다중 채무자의 평균 연령은 51.2세, 1인당 평균 채무관계에 있는 회사는 5개사(최고 30개사), 주택 용자를 제외한 1인당 평균 채무 액수는 480만 5000엔(약 6500만 원)이었음.
  - 도쿄都是 향후 자살 예방을 위한 ‘마음과 생명의 상담 지원 도쿄 네트워크’와 다중채무 상담을 위한 ‘도쿄 모델’ 사업을 적극 진행할 계획임.
-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8/09/20i9u100.htm)

### 13. 2010년 노령인구 약 250만 명 예상 (북경)

- ‘노령인구 현황 조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경市는 이미 인구 노령화가 속도에 접어들었음. 60세 이상의 노령인구 증가속도는 전체 인구 증가속도보다 빨라, 2010년에는 노령인구가 250만 명(북경市 전체 인구의 15.2%)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 현재 북경市 노인의 36.5%는 양로적금에 들었으며, 평균 저축액은 약 7만 위안(약 1300만 원)임. 노인의 53.9%는 사회양로보험에 들었음.
  - 전문 양로기관에서 지내고 싶어하는 노인이 빠르게 늘고 있음. 이는 노인 부양에 대한 중국의 전통사상이 크게 변화했음을 반영함.
  - 최근 6년 사이 전문 양로기관에 대한 선호가 13% 증가해, 전체 노년층의 22.8%에 달함.
  -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노년층은 집에서 노년을 보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재택 진료 서비스를 가장 원함.
- (newspaper.bjd.com.cn:81/bjrb/html/2008-09/24/content\_71300.htm)

## 14. '9073 노인복지 정책' 시행 (상하이)

- 상하이市는 2010년까지 '9073 노인복지 정책'을 확립할 예정임. 90%의 노인은 가정에서 부양, 7%의 노인은 재가복지 혜택, 3%의 노인은 시설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임.
  - 7%의 노인은 양로금이 있으나 부양할 가족이 없는 경우로 설거지, 빨래 등 재가복지를 제공받을 수 있음. 현재 약 16만 명의 노인이 이 혜택을 받고 있음.
  - 3%의 노인은 치매나 중풍 등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부양할 가족이 없어, 양로원이나 요양원 등의 시설복지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이외에 독거노인 무료 식사 제공을 늘리고, 양로원을 추가로 설립할 계획임.
- 상하이市의 현재 노인인구는 약 280만 명을 넘어 전체인구의 2.8%임. 80세 이상의 노인은 50여만 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17%를 점유하고 있어, 노인 문제가 심각한 실정임.

([www3.xinhuanet.com/chinanews/2008-10/08/content\\_14577036.htm](http://www3.xinhuanet.com/chinanews/2008-10/08/content_14577036.htm))

## 15. 노인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상하이)

- 상하이市 장닝취(長寧區)는 노인의 행복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노인 행복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3년 내 목표를 달성하기로 함.
  - 2008년 4월 화동사범대학교 인구연구소, 상하이市 노인과학연구센터와 함께 '노인 행복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연구조직을 편성하고, 도시 소외 계층인 노인의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함.
  - 기본 생활, 의료, 생활서비스, 사회참여, 권리, 직업 등 6개 항목을 주요 내용으로 15가지 가이드라인과 53가지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2010년까지 노인 우대창구 설치, 매년 의료비 지원, 모든 지역 거주단지에 100㎡ 이상의 노인복지회관 설립 등이 목표임.
- 상하이市는 목표 달성을 위해 3년 간 1억 위안(약 200억 원)을 투자해 노인복지 센터 7개를 건립하고, 1만 명의 노인 관련 복지인원을 양성하며, 20개의 노인 급식소를 신설할 계획임.

(www.news365.com.cn/wxpd/sh/cn/200809/t200)

## 도시 환경

### 16. 공원과 오픈 스페이스를 맘껏 즐기자 (런던)

- 런던市는 영국 정부의 자문기구인 ‘건축 및 환경위원회’(CABE: Commission for Architecture and the Built Environment)의 공공공간팀 ‘CABE Space’와 함께 런던시내 공원과 오픈 스페이스 활용지침인 ‘오픈 스페이스 전략’(Open Space Strategy)을 발표함.
  - 활용지침은 공원, 녹지를 담당·관리하는 자치구가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됨.
  - 주요 내용은 관할지역 내 오픈 스페이스의 양적·질적 상태 평가방법, 구민 의견 청취방법, 야생 동식물을 고려한 오픈 스페이스 활용방법 등임.
  - 자치구별로 작성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책 방향과 참고 사례를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둬.
  - 이번에 발표한 지침은 공원과 오픈 스페이스를 구분해 발표한 2004년 전략을 시대 변화에 맞게 개정해 통합한 것임.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9016)

(www.london.gov.uk/mayor/strategies/sds/open\_space.jsp)

### 17. 소배기량 경차 주차 우대 혜택 (상하이)

- 상하이市에서는 소배기량 경차의 주차장 이용료가 낮아질 전망이다. 市는 최근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주차 우대혜택을 논의 중이며, 주차증 자동발급시스템의 자동차 식별 문제가 해결되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 자동차로 인한 환경보호 문제와 에너지 절약 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전문가들은 차량 구매세, 자동차 보험, 도로비, 차량선박세 등에서도 소배기량 차량에 대한 혜택을 점차 늘려가야 한다고 주장함.
  - 현재 상하이市의 자동차 수는 100만 대를 넘어섰으며, 그 가운데 개인용 차량이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auto.cnr.cn/ctkx/200808/t20080818\\_505072488.html](http://auto.cnr.cn/ctkx/200808/t20080818_505072488.html))

#### 한줄 뉴스

##### <영국>

- '사회적 기업'을 자선단체로 오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실시
- 50%가 서민주택, 30%는 영구 임대주택으로 구성해야 하는 '에코타운' 프로그램 적극 홍보

## 도시계획·주택

### 18. 6조 5000억 원 규모의 주택건설 계획 발표 (로스앤젤레스)

- 로스앤젤레스市는 향후 5년간 총 50억 달러(약 6조 5000억 원)를 들여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다.
- 2만 개 주택 중 2200개는 노숙자에게 배정하고, 8800개는 연소득 2만 9000달러(약 3770만 원) 미만의 가구에 배정할 계획이다.
- 이번 계획안은 다양한 소득 수준의 주민이 함께 어울려 사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음.
- 주택 지원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재정은 로스앤젤레스市에서 10억 달러(약 1조 3000억 원),를 충당하고 나머지 40억 달러(약 5억 2000억 원)는 저소득층 주택 채권과 기부금, 대출금 등임.

([www.latimes.com/news/print/edition/california/la-me-housing28-2008sep28,0,3641478.story](http://www.latimes.com/news/print/edition/california/la-me-housing28-2008sep28,0,3641478.story))

### 19. ‘벌거벗은 거리’로 가로체계 디자인 (런던)

- 런던市 임페리얼공대(Imperial College London)와 켄싱턴·첼시자치구(Kensington and Chelsea Borough)는 실험적인 가로체계 디자인인 ‘벌거벗은 거리’(Naked Street) 프로젝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 거리의 모든 표지판과 교통신호등을 제거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표지판과 교통 신호등으로 막힌 시야를 확보함으로써, 좀더 안전한 환경에서 운전할 수 있게 하는 실험적인 프로젝트임.
-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도심의 도시계획에 많은 영향을 줄 것임.

- 비슷한 프로젝트를 사우스햄튼(Southhampton) 지역에서도 실시했지만 ‘영국 운전자협회’(Association of British Drivers)는 야간 시 안전문제를 들어 비판함.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8777](http://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8777))

## 20. 만질 수 있는 도시모형 제작 (함부르크)

- 독일에는 아주 작은 도시까지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용 도시모형이 있음.  
함부르크市는 최근 함부르크 라이언스 클럽과 함께 시각장애인도 인식할 수 있는 전시용 도시모형을 만듦.

- 함부르크市는 가로 2.65m, 세로 1.6m의 크기로 市를 형상화했는데, 만질 수 있게 제작하고 모형 속의 도로 이름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로도 새김.  
·만질 때의 효과를 위해 청동으로 제작했으며, 제작기간 9개월, 제작비용 4만 2000유로(약 7000만 원)가 소요됨.

([www.hamburg.de/nachrichten/584228/blindenstadtmodell.html](http://www.hamburg.de/nachrichten/584228/blindenstadtmodell.html))